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 세션 24, 사무엘 하 15-17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24회기 사무엘하 15:13-17:29입니다. 다윗이 다시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15장). 주님은 저주와 상담자를 물리치십니다(16장, 17장).

우리는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앞 부분에서 압살롬이 자신을 정의의 옹호자로 이스라엘에 소개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암논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압살롬이 적어도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취하도록 강요했으며 이제 그는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를 대적하여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15:13-37이라는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 제목을 다윗이 다시 목숨을 걸고 달린다고 명명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을 때 다윗은 여러 번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블레셋 영토로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그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의 지위가 확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를 그 성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삶에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사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있느니라. 사실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른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전 선지자들에게서 그것을 본 유일한 다른 시간, 또는 우리가 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들이 집단으로 통치하고 있었고 아비멜렉이 결정한 것을 기억합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이 한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제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요탐(Yotam)은 탈출하지만 그는 그의 형제들을 죽인다. 그리고 사사기 9장 3절에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같은 종류의 언어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에서 우연이 아닌 상호텍스트적 설계를 본다면, 당시 사용되었던 언어의 반향을 통해 압살롬의 잘못된 반역 동맹자들은 그 당시 아비멜렉의 잘못된 반역 추종자들과 비유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판사. 그리고 우리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는 시도가 비참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압살롬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에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랐으니 마치 사사 시대에 세겜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 아비멜렉을 따랐던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다윗은 모든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도망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좌를 차지하러 오고 있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날을 싸우기 위해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즉시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속히 달려와서 우리를 덮쳐 우리를 파멸시키고 그 성을 칼로 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걱정합니다. 그는 도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떠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떠나고 그의 온 집안이 그와 함께

하되 열 명의 후궁은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래서 David의 생각은, 우리가 궁전을 관리하도록 그들을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적어도 첩들에게는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은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 가장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남자들은 지나간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도시를 떠나도록 강요당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19절에서 왕은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인 잇대라는 이름의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 아래에 합류하여 다윗의 군대의 일부가 된 용병입니다. 다윗이 이사했을 때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드 왕 아키스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잇대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겠나이까? 돌아가서 압살롬 왕과 함께 있으라.

당신은 외국인이고 고국에서 망명한 사람입니다. 어제야 오셨군요. 내가 왜 당신을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이 일을 위해 로그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압살롬이 들어올 때 당신은 그냥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친절과 신실하심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잇대는 분명히 압살롬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로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왕위를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나타난 외국인이 있는데 데이비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생명을 두고 내 주 왕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 왕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종이 거기 있으리라. 그래서 잇타이는 다윗의 아들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에 대한

그의 충성과 충성을 단언합니다. 그래서 David는 Ittai에게 계속해서 행진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당신이 있어 기쁘다는 말처럼 말이죠. 이에 가드 사람 잇대가 그의 모든 부하와 그와 함께한 가족과 함께 행진하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온 시골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고 모든 백성은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독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은 우리가 다윗과 함께 법궤를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고, 아비아달은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고 모든 백성이 그 성에서 떠날 때까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다시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얻으면 나를 데리고 돌아오셔서 그 곳과 그 계신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 좋을 대로 나에게 행하게 하라.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방주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데이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법궤가 단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나를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님의 징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뜻에 복종할 것이며 당신은 방주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까? 27절, 나의 축복을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자신의 운명을 여호와와 손에 맡긴 다윗도 어느 정도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는 스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나와 아비아달은 네 아들들과 함께 돌아가라 하였느니라 너희에게서 나에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나는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할 것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울면서 올리브산을 계속 올라갑니다. 머리는 가려져 있고 맨발이다.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있어 울면서 가느니라.

다윗은 이 시점에서 아키토필이 압살롬과 공모한 자들 중 하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 장의 앞부분에서 언급되었으며 그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자 선도적인 상담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 시점에서 카운슬러들 사이에서 일종의 올스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아히도벨,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해주는 지혜로운 아히도벨도 반대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는 Aki-Tofil을 전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는 좋은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그것을 뒤집을 수 있고 그의 조언을 어리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를 위해 주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빨리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산꼭대기에 도착하고, 아렉 사람 후새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쓴 채 그를 맞이합니다. 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명히 애도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분명히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가면 네가 내게 짐이 될 것이니라 후새가 다윗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윗은 아니 오히려 짐만 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폐하 말하기를 내가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나는 예전에는 당신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Aki-Tofil의 조언을 좌절시켜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David는 방금 기도했습니다. 주님, Aki-Tofil의 조언을 뒤집으십시오.

그런데 보라, 거기 언덕 위에 후새가 서 있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가는 것보다 왕궁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나에게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파이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느냐? 궁전에서 듣는 것은 무엇이든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두 아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듣는 것은 무엇이든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거기로 돌아오면 그들의 아들이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것을 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는 압살롬의 생각을 말해 주고 나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왕궁에 모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다윗의 신복 후새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6장으로 이어집니다. 16장과 17장은 함께 진행되며 나는 그 제목을 주님께서 저주를 물리치시며 상담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그의 징계에 겸손히 복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회개한 종 다윗을 옹호하실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는 돌아올 것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모두 그의 징계의 일부라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들에서 보게 될 것은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며, 압살롬이 정말 열심히 뒤쫓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다윗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부터 다윗이 산꼭대기 너머로 조금 갔을 때 므비보셋의 청지기 시바가 그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를 돌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요나단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어서 시바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사울의 종이었으므로 당신을 원합니다. 므비보셋을 잘 돌보고 그의 밭에서 일하여 섬기게 하십시오. 이제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는 안장을 엮은 당나귀 한 무리에 빵과 건포도와 무화과와 포도주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바가 다윗에게 가져온 선물 목록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준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왕은 시바에게 묻습니다. 왜 이것을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시바는 말하기를, 당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기 위한 것이고, 빵과 과일은 남자들이 먹기 위한 것이며,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쳤을 때 당신의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바는 현 시점에서 다윗의 충실한 추종자인 것 같습니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에서 므비보셋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바가 이르되, 그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할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이 설명을 받아들인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속한 것은 이제 다 네 것이니라 그는 기본적으로 므비보셋이 자신을 배반했다고 생각하면서 므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을 시바에게 줍니다. 겸손히 절합니다. 지바가 말했다.

내 주 왕이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입게 하소서.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은 므비보셋이 절름발이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다윗에게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서술자가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시바가 아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도해 왔습니다.

다윗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그리고 지바는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올 때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데이빗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단지 므비보셋과 시바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비록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주된 관심은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기본적으로 므비보셋의 것을 훔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개인이 은밀한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의 섭리로 여전히 다윗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David는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바후림에 다가가는데, 그곳에서 사울의 가족과 같은 가문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베냐민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 아직도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더라.

그리고 나오자마자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에서 저주는 단지 네 글자로 음란한 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주는 개인이 유죄라고 느끼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신에게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히 David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호위병의 군대는 모두 다윗의 좌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이비드에게 경호원이 있고 군인이 몇 명 있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데이비드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에게 돌을 쓰고 흙을 던질 뿐입니다. 그리고 시메는 저주하면서 나가라고 말했다. 나가라, 살인자야, 악당아. 사울의 집에 네가 흘린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갚으셨느니라

이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과 다른 많은 베냐민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베냐민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그는 용서받은 살인자입니다. 그는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무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사과와 변호의 일부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술자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아비새야, 우리는 전에 그를 본 적이 있고 그를 압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갔을 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아비새였습니다.

사울의 창이 그의 바로 옆에 있는지라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그 창을 그 사람에게 찌르게 하소서. 다윗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손을 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 아비새가 시메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제가 가서 그의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비새가 단 한 번의 빠른 스트로크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시다시피 그의 조카들이에요.

만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네가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다윗은 이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징계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에 정말로 겸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왜 나를 저주해야 하지?" 나는 그가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 비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일에 대한 형벌의 일환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비새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살과 피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베냐민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습니까?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베냐민 사람이 여전히 나에게 적대적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니 그를 내버려두세요. 저주하게 놔두세요.

그리고 David는 지금 여기서 더욱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나를 저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므이를 주님의 징계의 도구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므이가 하고 있는 어떤 것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므이가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오늘 나의 불행을 감찰하시고 그의 저주 대신에 그의 언약의 축복을 내게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잘못된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비난하는 것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거짓

비난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나에게 축복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악한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것에 대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계속 길을 가고 있는데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 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흙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돌들과 이 모든 흙을 발사할 수 있는 좋은 팔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지쳐 목적지에 도착하니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기분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려갔습니다.

그는 트랜스요르단으로 건너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아마도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다윗을 떠나 성읍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조언자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새가 압살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후새가 여기서 꽤 용감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그는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 만세, 왕 만세'라고 말합니다. 접근하는 흥미로운 방법은 다윗이 기본적으로 후새에게 가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새가 그 일을 완전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분명히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왕이다.

하지만 정말 모호한 언어입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후새의 마음 속에서 그는 아마도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자신을 왕의 지시자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만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후새의 마음 속에는 압살롬이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고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후새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에게 베푼 사랑이냐? 그 사람이 당신 친구라면 왜 그 사람과 함께 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압살롬은 후새의 충성심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배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데이빗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니 나는 이 백성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택한 자니 나는 그의 것이 되고 그와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그의 마음 속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말조차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왕으로 택한 다윗을 가리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충성심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후새의 생각에는 원래 다윗이 백성들에게 선택되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내가 아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섬기겠다.

그 시점에서는 매우 기만적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우리에게 조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아히도벨은 대답합니다. 우선, 아버지가 왕궁을 돌보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함께 자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다윗이 왕궁을 돌보도록 첩 열 명을 그곳에 남겨 두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에게 가증스러운 일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며,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이 더욱 완고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입증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제 말은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의 첩들과 함께 자면 그게 본질적으로 의사소통이 될 테니까, 내가 이 마을의 새로운 보안관이 되는 거야. 나는 왕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후궁들은 이제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내 재산입니다. 그것들은 왕의 재산입니다. 그것들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압살롬을 위해 옥상에 천막을 쳤습니다. 지금 기억하세요.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이지만 Nathan이 예언한 일입니다. 다윗의 죄는 본질적으로 성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은밀히 행했지만, 심판이 오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지자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섹션을 읽으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과 함께 계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징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맥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압살롬을 위해 옥상에 천막을 쳤고,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히도벨이 베포 조언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의 조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는 그가 얼마나 성공하고 존경받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에게 질문, 즉 답을 물으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든 조언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7장으로 갑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이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서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현명하고 이것이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에게 내가 오늘 밤에 12,000명을 선발하여 다윗을 추격하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언은 그에게 재편성할 시간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쫓아라.

지금 몇 사람을 데리고 그를 추적하십시오. 나는 그가 지치고 약할 때 그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놀라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이다. 그러니 그를 쫓아가서 그를 쓰러뜨리십시오. 나는 왕만 쳐죽이고, 그를 표적으로 삼아 찾아내고, 죽인 다음, 모든 백성을 당신에게로 데려오겠습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귀환을 의미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사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이 계획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을 목표로 삼아 그가 약할 때 쫓아가서 그를 죽이고 백성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군대가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를 쳐부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올 것이다. 그들은 충실할 것입니다.

그가 프로젝션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는 쉽게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의 조언이고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였고 나중에 이야기꾼인 서술자는 그것을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새를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제안한 내용에 그가 동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후새가 그에게 오매 압살롬이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런 조언을 하였느니라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귀하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후새는 압살롬에게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조언이 좋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히도벨에게 도전합니다. 그는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투사이며 새끼를 빼앗긴 야생곰처럼 사납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아버지는 경험이 풍부한 전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사로서의 다윗의 기량과 그의 부하들의 기량, 그리고 그의 경험에 호소합니다.

그는 군대와 함께 밤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고립시켜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없을 거예요. 그는 주변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친 것 같아? 나는 지금 의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동굴이나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만일 그가 당신의 군대를 먼저 공격한다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은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가 학살당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다윗이 당신의 군대를 공격하고 나서 모두가 '어쩌면 주님께서 압살롬과 함께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가장 용감한 군인이라도 두려움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용사이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용감한 줄을 온 이스라엘이 아나니

그래서 그는 다윗의 명성에 호소합니다. 그는 다윗을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숨어서 적절한 시간에 그의 부하들과 함께 공격할 것이고 여러분은 몇몇 병사들을 잃고 지원도 잃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데이비드와 맞서고 싶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주변에 있었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노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해변의 모래 같이 많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모아서 당신이

그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하라. 따라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거대한 군대를 확보하고 힘과 숫자로 그를 압도하십시오. 그리고 군대에 대한 언급, 즉 이 이론적 군대는 해변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무적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학적으로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메아리가 있습니다. 이전 선지자들보다 세 번이나 먼저 왔으며 히브리어 성경의 이전 선지자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였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루스가 아닙니다. 롯기는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성경의 책들은 영어 성경의 배열과 다르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세 번이나 이전 선지자들의 글에서는 군사력이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에 여호수아를 치러 나온 군대 중 하나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기드온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군대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했습니다.

그러므로 군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해서 주님이 공격받는 자의 편에 계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후새가 계속하면 우리는 그를 만나는 곳마다 공격하여 땅에 이슬이 맺히듯이 그를 덮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슬이 땅에 떨어지면 땅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숫자로 압도할 것입니다. 그와 그의 부하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가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읍으로 밧줄을 가져올 것이요 조약돌이 남지 않을 때까지 계곡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히도벨의 조언을 반박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움직여서 세계 쳐서 다윗을 겨냥하면 그 군대 전체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새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빗은 당신이 그를 데려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숨어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군대를 매복 공격할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군대 사이에 낙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안전 해지자.

온 이스라엘에서 큰 군대를 모으자. 그러면 우리가 건너가서 그를 쳐서 그가 우리의 힘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17장 14절에서 아렉 사람 후새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 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폐하기로 작정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기도했지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용감한 후새와 그의 전략을 통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시점에서 그들은 후새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실제로 그 직후에 그들이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David에게 시간을 벌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다윗 편에 계심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으며 실제로 그렇습니다. 첩과의 사건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윗의 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후사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자신이 정탐꾼 조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려진 결정을 들었습니다.

아히도 벨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따라서 David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광야의 여울목에서 밤을 지내지 말라고 하십시오. 반드시 건너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삼켜질 것입니다.

압살롬이 후새와 함께 갔다는 것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새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자, 제사장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에인 로겔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종 하나가 가서 그들에게 알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왕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직자 구역으로 왈츠를 추러 가지 않습니다. 첩보망에는 자신에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여종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신부님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새에게서 제사장에게로, 제사장에게서 여종에게로 나아간 다음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들킬 위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 계획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곧바로 떠나 바추림에 있는 한 남자의 집으로 갔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충분한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있으니 제사장들의 아들들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건 보기에도 좋지 않고 냄새도 안 나네요. 그 사람의 뜰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우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덮개를 가져다가 우물 입구에 펴고 마치 곡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그 위에 곡식을 뿌립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부하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그 집에 있는 그 여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들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여자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시내를 건너갔다. 남자들은 수색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두 사람은 우물에서 나와 다윗 왕에게 가서 강을 건너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합니까? 글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침략할 때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은 그들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생 라합은 그들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왕의 신하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기러기로 쫓아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절 22절에 따르면 그들은 길을 따라 수색했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다윗의 두 정탐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보내 그들을 뒤쫓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후림의 한 여인이 그들을 숨겨 주고 거짓말로 왕의 신하들을 꾀어 정탐꾼들을 찾았으나 한 사람도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저는 사무엘하 17장에 이전 이야기의 메아리가 어찌면 희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정탐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Ein Rogel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는 밟는 사람의 봄 또는 풀러의 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Rogel은 스파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처럼 들립니다.

단어에는 R, G, L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나치게 미묘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연결이 있습니다. 19절은 문자 그대로 그 여자가 겹옷을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은 여자 라합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겼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여자가 데려갔다는 말이 이전 선지자들에게 흔히 사용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이 사용된 구절은 이 두 구절뿐입니다. 여호수아 2장 22절과 사무엘하 17장 20절에서 우리는 정탐꾼들을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에게 대해 읽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은 구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언어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마.

이전 선지자들의 이 시점까지, 이것은 누군가가 구하고 찾지 못하는 유일한 두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속은 왕경의 헛된 노력에 관한 이야기들 사이에 실제로 연관성이 있다면, 상호텍스트적 연결은 어떠한가? 서신은 무엇입니까? 글썬요, 스파이들은 서로 대응합니다. 라합은 바후림의 익명의 여성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정탐꾼들도 결국 다윗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다윗과 여호수아가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정탐꾼을 보낸 압살롬이 남게 됩니다. 글썬요, 그 사람은 여리고 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야기에서 그에게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편에 섰습니다. 압살롬은 여리고 왕처럼 원수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몇몇 용감한 사람들을 통해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청년은 우물에서 나와 다윗에게로 가서 이르되, 나가서 단번에 강을 건너라(21절).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은 길을 떠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처음에는 그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후세는 결국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할 것이라고, 혹은 그것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적어도 처음에는 그의 조언이 따르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귀에 안장을 엮고 고향에 있는 자기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문화에서는 명예와 수치심이 엄청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 말은, 그는 올스타라는 거죠.

모두가 그가 말한 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가서 집을 정리하고 목을 매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이는 아마도 목을 매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큰 군대를 얻기를 기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 우리가 지금 그를 따라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그의 결정에 대한 후세의 회의론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도 가족이에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로 나아갈 때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소비는 암몬 자손 나하스의 아들 마길이요 바르실래라는 친구더라 그리고 그들은 침구와 그릇, 도자기와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위해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8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24회기 사무엘하 15:13-17:29
입니다. 다윗이 다시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15장). 주님은 저주와 상담자를
물리치십니다(16장, 17장).